

# LG, 2010년까지 R&D인력 2배 확대

## 전자부문 연구개발에 30조원 투자 ... 화학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강구

LG그룹이 2010년까지 연구개발(R&D)에 30조원을 투자해 세계 3대 전자·정보통신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LG는 5월12일 평택 LG생산기술원에서 구분무 회장과 강유식 LG 부회장, 김쌍수 LG전자 부회장, 구본준 LG필립스LCD 부회장 등 전자부문 계열사 CEO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기술 전략회의>를 열고 장기 사업전략을 논의했다.

LG는 회의에서 2004년 전자부문 연구개발에 2003년보다 21% 증가한 2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매년 투자규모를 늘려 2007년에는 4조원, 2010년에는 6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201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 현재 1만4000여명 수준인 전자부문 R&D 인력을 2007년에 2만4000명, 2010년에는 현재 인력의 2배가 넘는 3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부문별로 이동단말기는 CDMA 경쟁력을 활용해 GSM 시장에서 조기에 입지를 강화해 2007년 세계 이동단말 시장에서 3위권에 진입하고, 디지털TV는 첨단 핵심 칩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북미 등 선진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PDP와 LCD 부문에서 앞선 투자와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을 본격화해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지위를 유지·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가전 분야에서는 수년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정용 에어컨의 사업역량을 상업용 에어컨으로 확장하고 프리미엄 가전 등 신성장사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또 매년 연구개발 투자의 60% 이상을 이동단말기, 디지털TV, 평판 디스플레이 등 중점육성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홈네트워킹, 카 인포테인먼트(Car Infotainment), 모바일 AV기기 등 신규사업과 미래사업에 대한 R&D에 2004년에만 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LG 관계자는 “핵심 기술력만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전자부문 R&D투자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는 2차전지, 편광판 등 정보전자소재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LG화학에서도 노기호 사장, 여종기 사장 등이 참석해 전자와 화학 부문의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화학저널 2004/05/13>